

# 2023년도 대통령과학장학생 3명 선정

- 기초교육학부 양은규,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심수연, 생명과학부 김정서 학생 선발돼



▲ (왼쪽부터) 기초교육학부 양은규,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심수연, 생명과학부 김정서 학생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직무대행 박래길) 기초교육학부 양은규,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심수연, 생명과학부 김정서 학생이 **2023년 대통령과학장학금 장학생에 선정**됐다.

장학생에 선정된 경우 올해부터 졸업 때까지 등록금과 학업장려비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는 157명의 국내외 신규 장학생이 선정됐다.

**양은규 학생**은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장학생으로 선정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을 계기로 더욱 학업에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수연 학생**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교육봉사에도 성실히 임한 결과 좋은 기회를 얻었다"며 "대한민국 인재상에 이어 이번 장학금도 응원해주신 손진희 지도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공학도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서 학생**은 "장학금 수혜는 큰 영광이자 동기부여"라며 "그동안 이끌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생명현상 연구에 정진해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대통령과학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으로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 학생을 발굴·육성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핵심 과학

자금을 양성하는 장학제도로, 학업성과 과학 관련 활동, 성장계획, 봉사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심층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2003년부터 학부 1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150여 명의 국내외 이공계 대학생을 선발되어 졸업 때까지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250만원의 학업장려비를 지원받고 있다.